

갤러리에 파릇파릇 봄이 왔어요

광주신세계갤러리 4월 9일까지 '식물이 가득한 풍경' 전...식물 소재 회화·사진·영상 등



김지영 작 '여기, 다시 꽃피우다'

거리의 나무들은 아직 푸른 옷을 입기 전이지만 갤러리에는 푸른 빛이 가득하다. 김주연의 영상작업 'Metamorphosis III'은 흥미롭다. 6분 분량의 작품에서는 전시장 천정까지 높이 쌓인 신문지 더미에서 녹색 식물이 피어나는 경이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김 작가의 또 다른 사진 작품에선 식물로 뒤덮인 '옷'을 만난다. 생명력 넘치는 삭으로 가득해 녹색 풀밭같은 '코트', '염구리'와 소매 군데군데 삭을 달고 있는 붉은색 원피스 등이다. 작가는 자신이 입었던 옷에 씨앗을 심고, 삭 틈은 옷을 사진으로 촬영한 '존재의 가벼움' 시리즈를 전시중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식물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 6명을 초청,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4월 9일까지 'PLANT SCENE-식물이 가득한 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식물을 소재로 한 회화, 사진 등이 전시된다.

사진작가 이정록의 'Nabi'는 현실세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그 '무엇'과 현실적인 '무엇'을 넘나드는 나비의 이미지를 요묘한 숲 속에 담아 사진으로 표현한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설치와 촬영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한 장의 사진에서 영혼을 상징하는 나비가 전달하는 초자연적인 기운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관람객들의 사진 스폷으로 인기가 높은 김지영 작가의 작품 '여기, 다시 꽃피우다'는 삶의 공간에서 만나는 소박하고 작은 꽃들을 하나둘 채집하듯 광목천에 그려 대형 벽면에 설치한 작품으로 화려한 색감의 소박한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린다.

방명주 작가의 'Rise Raise' 연작은 부산의 오래된 식물원의 장면들을 담고 있다. 새싹이 돋고, 자라고, 꽃이 피고, 일과 씨앗이 떨어지고, 죽고, 다시 움트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나현의 '난지도' 연작은 작가가 진행하고 있는 바벨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물학자, 화훼 전문가와 함께 난지도 공원에서 채집한 귀화식물들의 표본을 사진을 찍어 프린트한 작품이다.

전시장에는 또 '어서와 나의 봄'이라는 네온 글씨와 함께 다양한 식물로 꾸민 푸른 공간('Soho&Noho 광주점' 설치)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주연 작 '존재의 가벼움III'

미술강의 듣고 도시락 먹고

광주시립미술관 런치토크...27일 전승보 관장 첫 강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지난해에 이어 제2기 런치토크강좌를 운영한다. 미술관 런치토크강좌는 전시기획과 연계, 참여작가와 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기획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열린다.

무료(50명 선착순)로 진행되는 런치토크강좌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강의를 듣는 기획으로 낮 12시부터 2시까지 강의가 이어진다.

'전시를 요리하다'를 주제로 오는 27일 열리는 첫 강의에는 전승보 광주시립미술

관장과이 참여해 '미술관의 상상력'에 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4월에는 대한민국인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참여작가 박건웅 만화가와의 만남을 통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소개한다. 5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소장품 특별전 '남도미술 뿌리'전과 관련, 전남대학교 장석원 명예교수가 남도화단의 대표적인 예술가와 작품들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본다.

6월에는 이길형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감독을 초대, 올 행사 주제인 '휴머니티'의 개요와 설명을 통해 디자인의 본질과

역할을 공유하며 8월에는 디자인비엔날레 기념전 '미향 광주의 맛과 멋'과 관련, 최지영 아트 디너 대표가 '그림의 맛'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밖에 9월에는 이선옥 의재미술관장이 '의재 허백련과 연진희의 남종문화와 그 의미'를 들려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나희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디지털시대의 미디어아트')이 강연한다. 매 강의 1주일 전 오전 9시부터 전화로 선착순 모집한다. 첫 강의는 20일 접수받는다.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

DMZ '봄'이 오는 소리

평화 과정 조명...21일~5월 6일 문화역서울 284 광주비엔날레 협력 손봉채·이불 등 50여명 참여

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이 주관하는 '디엠지(DMZ)' 전시가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김선정)의 협력으로 21일부터 5월 6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다.

전시회 열리는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는 남과 북을 연결했던 경의선 열차의 '출발점'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남북 정상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던 비무장지대와의 공동된 상징성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강운 작 '밤으로부터'

김선정 대표이사가 총괄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 학자들과 함께 현재 진행형의 평화 과정을 그려보고,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을 정치·사회적·문화·예술적, 일상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냉전의 산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휴전선 감시초소의 시대적 의미와 감시초소 철거에 담긴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전달한다. 특히 민간인 통제선과 통제구역, 통문, 감시초소 등의 '공간적 구성'과 함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져 과거부터 감시초소가 없어진 미래의 비무장지대까지를 아우르는 '시간적 구성'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는 ▲비무장지대의 변화를 상상해보는 '비무장지대(DMZ), 미래에 대한 제안들' ▲평화로 나아가고 있는 남과 북의 현재의 모습을 반영한 '전환 속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전방관측소(OP)' ▲군인-민간인-작가

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삶: 군인·마을주민' ▲비무장지대의 역사를 다루는 과거의 공간으로서 관련 구축 자료(아카이브)와 회화 작업을 선보이는 '비무장지대(DMZ), 역사와 풍경' ▲비무장지대(DMZ)의 현재와 미래를 접하는 공간인 '비무장지대(DMZ)의 생명환경' 등 총 다섯 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안규철, 이불, 정영두, 백승우, 김준, 노순택, 오형근, 문경원·전준호, 임민욱, 조민석, 송효상, 최재은, 민정기, 김선두, 강운, 손봉채 등 예술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또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학술행사, '북 콘서트', 영화 상영, 접경 지역 특산물인 쌀을 활용한 '디엠지(DMZ) 장터'와 비무장지대(DMZ) 상품을 선보이는 '선물의 집', 도라산 및 철원 지역의 '비무장지대 열차관광'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열린다.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 시사회

광주극장 22·24일

광주극장이 다큐멘터리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나는 반대한다' (사진) 시사회를 22일 오후 7시 20분과 24일 오후 3시 20분에 연다.

여성 감독 벤티 웨스트, 줄리 코헨이 연출한 이 작품은 92회 미국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주제가상과 72회 영국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여성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과 사랑을 그렸다. 3월28일 개봉. 전체 관람가. 극장 후원회원은 무료·일반 관람 8000원. /백희준 기자 bhj@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